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소련/러시아
여섯 대의 카메라
데탕트와 탈냉전
한반도와 국제정치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 편저자_ 하영선
- 출판사_(재) 동아시아연구원
- 발행일_ 2015년 5월 28일
- 가 격_ 23,000원
- ISBN 979-11-86226-31-5 93340
-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출판팀 신영환 T.02-2277-1683 (내선 112), F.02-2277-1684, yhshin@eai.or.kr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에서 동북아 국제정치로

이 책의 시작은 국제정치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이다. 2012년 당시 하영선 교수(현 EAI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는 세계정치학회 참석을 위해 마드리드를 방문하던 중 현대 팝아트의 대가인 데이비드 호크니 특별전을 찾게 되었다. 이 전시회에서 특히 시선을 끌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비디오아트인 “Nov. 7th, Nov. 26th 2010, Woldgate Woods, 11.30 am and 9.30 am”였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고향인 영국 동요크셔의 월드게이트(Woldgate) 숲을 캔버스에 입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아홉 대의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고향 숲길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촬영했다.

아홉 대의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하나의 풍경. 각각의 카메라는 고유한 장면을 담아내면서도 전체적으로 커다란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와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치도 하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 고유의 시선에 집중하여 살펴본 다음, 이들을 다시 하나로 장면으로 종합한다면, 행위자와 맥락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이렇듯 현대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미술적 시도가 동북아 국제정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남북한의 퇴행적 냉전체제, 벗어날 길은 없는가?

1990년을 앞두고 세계는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였고 해빙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의 흘렀다. 이제 누구도 오늘의 국제정세를 논할 때 냉전을 말하지 않는다. 이념은 퇴색했고 갈등은 세속적이며, 협력과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는 이미 냉전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졌다.

그러나 한반도는 다르다. 한국과 북한은 여전히 대치상태에 있으며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의 시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관계가 회복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일시적이었을 뿐 이내 엄습한 퇴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세계는 변했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 또한 과거와는 다른데, 어찌하여 남북한은 여전히 냉전의 울가미에 묶인 채 제자리인가?

과거의 경험, 전세계적 화해 무드도 한반도에서는 좌절되었던 바 있다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세계는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이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극렬히 대립하고 경쟁하며 단절되어 있던, 전쟁처럼 치열했지만 화염은 없었던 냉전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평풍외교를 시그널로 하면서 미국의 국가원수가 반대 진영의 대국인 중국을 방문한 것은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어쩌면 이념적 대립이라는 견고한 틀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점치기도 했다. 데탕트의 개막이었다. 이로써 세계는 냉전의 긴장에서 다소 벗어나 해빙의 무드를 맛보게 되었다.

전세계적인 데탕트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외 여러 이해가 맞물려 남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 긴장완화와 화해를 위한 첫 단추를 맞추는 듯했다. 어쩌면 한반도의 미니데탕트가 실현될 수도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자들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기에 전세계적인 화해와 해빙의 무드가 한반도에서는 자리잡을 수는 없었다. 한반도의 미니데탕트는 좌절되었다.

여섯 대의 카메라 렌즈, 데탕트와 탈냉전의 한반도를 촬영하다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소련/러시아라는 여섯 대 카메라를 사용하여 1972년 한반도 미니데탕트의 좌절과 2014년 한반도 탈냉전의 어려움을 대비적으로 촬영함으로써 한반도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6개 국가의 카메라를 1972년과 2014년으로 나누어 각기 촬영할 12인의 전문가를 촬영감독으로 영입하였다.

공동작업은 첫 단계로서 역사적 현실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자의 주관적 시야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국들의 핵심 외교문서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1970년대의 키신저-저우언라이 협상록, 남북한 7·4남북공동성명 관련 회의록과 2010년대 6개국의 핵심 관련 문서 등을 함께 읽었다. 다음 단계로서 호크니처럼 먼저 1970년대의 데탕트와 한반도를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6개의 초별 촬영 화면을 엮어서 하나의 큰 화면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2010년대의 탈냉전과 한반도의 큰 화면을 구성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삶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지역, 한반도라는 공간 복합성과 1970년대의 데탕트와 2010년대 탈냉전의 시대 복합성의 의미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열두 편의 완성된 초고들을 기반으로 해서 1970년대에 강대국들의 데탕트가 왜 한반도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라는 좌절의 역사로 전개됐으며 2010년대에 강대국들의 탈냉전이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탈냉전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다 분석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모든 원고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국내의 한국현대사 연구와 한국외교정책 연구가 이분법적으로 단순화된 문제의식과 방법론의 답답함 속에서 자기만족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는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를 다각적이고 통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시공적 복합성을 보여주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이 책을 통해 21세기 신한반도 정책과 담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서문

제1부 1972년

- 1장 적(敵)에서 암묵적 동맹으로 : 데탕트 초기 미국의 중국 접근 ■ 마상윤
- 2장 중국의 1972년 대미 데탕트 : 배경, 전략, 역사적 함의 ■ 이동률
- 3장 미중 데탕트와 일본 :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 손 열
- 4장 미중 데탕트와 소련 :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 ■ 강윤희
- 5장 북한 1972 진실 찾기 : 7.4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 ■ 하영선
- 6장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행정부의 선택 ■ 조동준

제2부 2014년

- 7장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 : 아시아 공존의 상호인정과 지속되는 긴장 ■ 손병권
- 8장 국제질서 변환과 각축하는 미중관계 :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정책 방향 ■ 박병광
- 9장 21세기 일본 외교전략의 변화 : 보통국가의 변환과 다차원 외교의 대두 ■ 이승주
- 10장 동북아 세력구도 변화와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 ■ 신범식
- 11장 미중시대 북한식 국제정치 독해 : 자주외교 불패 신화의 유산 ■ 김성배
- 12장 한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 현황과 과제 ■ 전재성

집필진 소개 (가나다 순)

강윤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러시아학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영국 글라스고우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특별연구원, 고려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러시아 정치 및 역사, 여성정치 등이 있다. 저서 및 편저로는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2009, 공저), 《러시아의 선택 :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국가·시장·사회의 변화》(2006, 공저), 《한러관계사료집 1990-2003》(2005, 공저), “러시아 체제 전환 :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계”(2012), “스탈린의 산업화전략과 소련공산당 기능의 변화, 1928-1932 : 레닌그라드의 사례연구”(2002) 등이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책임연구원. 북한과 한반도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통일부 정책보좌관(2006),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2003-2006년)을 역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외교사, 한국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유교적 사유와 근대국제정치의 상상력》,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환재 박규수와 시무의 국제정치학”,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처”,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Identity Politics in 2006,” “Rebuil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Understanding the Dokdo Issue,” “2013년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청대 한국의 유교적 대중전략과 현재적 시사점” 등이 있다.

마상운

가톨릭대 국제학부 부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친 후 영국 옥스포드대학에서 196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 국제교류처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및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방문학자로 선발되어 연구하였다. 주된 연구 분야는 미국외교정책, 한미관계, 냉전외교사이다. 최근 출간된 논문으로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 1970년대 이후의 역사적 흐름”, “한국군 베트남 파병 결정과 국회의 역할”, “1970년대 초 한국외교와 국가이익 : 모겐소의 국익론을 통한 평가”, “특수관계의 해부 : 영국 블레어 정부의 자유국제주의 대외정책과 영미관계”,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미동맹 : 현실주의 역외균형론을 넘어서” 등이 있다.

박병광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연구위원 겸 지역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상하이푸단대학(上海復旦大學) 국제정치학과에서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1998)를 취득하였으며, 도쿄대학(東京大學) 동양문화연구소 외국인연구원(1998-1999) 및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2004-2005), 타이완(臺灣)외교부 초청 타이완 펠로우십 방문학자(2012)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전략연구〉 2013), “South Korea-China Security Cooperation: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Opening/Reform and Contingencies” (*IFANS Review* 2012),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관한 소고 : 지정학과 군사과학기술 요인을 중심으로”(〈국가전략〉 2011) 등이 있다.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미국정치를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정치발전, 미국외교, 미국과 한국의 정치제도 및 과정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기후변화 대처와 미국 패권의 딜레마 : 국제적 공공재 창출에 대한 국내적 저항》, “미국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최종 통과 과정 : 하원의 자동실행규칙의 폐기와 오바마 행정명령의 선택”, “미국정치의 집단적 사회운동으로서 티파티 운동 참여자의 성격과 구성” 등이 있다.

손 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겸 원장.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도쿄대학교, 와세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교수를 거쳤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일본 및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연구업적으로는 “지역공간의 개념사 : 한국의 ‘동북아시아’”, “한미FTA와 통상의 복합전략”, “동아시아에서 지역다자경제제도의 건축 경쟁”, “Japanese Market Opening Between American Pressure and Korean Challenge” 등이 있다.

신범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슬라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외교정책과 유라시아 국제관계이다. 주요 논저로는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2006, 편저), 《러시아의 선택 : 탈소비에트 체제 전환과 국가 · 시장 · 사회의 변화》(2006, 공저),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2006, 공저), “Russia’s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Politics” (2008) 등이 있다.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현대중국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패널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중국 소수민족,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 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편저),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일연구원 연구원, 미국 버클리대학교 APEC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작으로는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 (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 (공편) 등이 있다. 그 외 <한국정치학회보>,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The Pacific Review*, *Asian Survey* 등의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주된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동아시아 국가들의 제도적 균형 전략이다.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 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조동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및 부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로는 국제기구, 한반도와 국제정치 등이 있다. 주요 논저로는 “안보위협을 대처하는 중소국의 선택”(2010), “Barg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Inter-state Dispute”(2009, 공저), 《고위관료들, ‘북핵위기’를 말하다》(2009, 편저) 등이 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한국외교사 연구 모임, 전파 연구모임, 정보세계정치 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어 왔다. 저서 및 편저로는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복합과 공진》,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역사 속의 젊은 그들》,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시간의 통일이야기》, 《네트워크 세계정치》,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1세기 평화학》, 《국제화와 세계화》,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의 여러 전문가들이 EAI를 통해서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가교로서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